

성악 중등부/초등부1·2·5·6학년 김선희 조선대 교수

노래를 즐기려는 태도·표현력 돋보였던 무대

밝고 자신감 있는 무대는 보는 이에게 행복감을 준다. 노래를 즐기려는 태도와 표현력이 돋보였던 무대다. 곡의 분위기를 이해하고 전달하려는 노력이 잘 느껴졌으며, 기본적인 발성도 안정적으로 잘 돼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앞으로는 박자와 가사를 더욱 정확히 익히고, 선택한 곡의 특징과 감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본다면 더욱 풍성한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요의 경우 리듬의 장단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전통적인 느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연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가사가 많은 곡보다는 부담 없는 곡 선택이 중요하다. 율동은 과하지 않게 조절하면 집중력과 전달력에 도움이 된다.

전체적으로 성실함과 열정을 기를 수 있었던 무대이며, 참가자 학생들의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해본다.

현악 임봉순 삼육대 명예교수

현악기 밝은 미래 엿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

현악 부문에서는 초등부 참가자들의 눈에 띄는 성장이 인상적이었던 데 반해 중·고등부는 상대적으로 완성도 면에서 다소 아쉬운 무대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역량보다 지나치게 난이도 높은 곡을 선택한 경우, 활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어깨가 올라가면서 음색이 거칠어지는 경향이 노출되었다. 반면 일부 남학생들은 깊이 있는 음악적 표현과 기교로 눈길을 끌었다.



공쿠르는 연주자의 다양한 재능을 평가받는 소중한 자리다. 기술적인 곡은 다이내믹과 대미감을 효과적으로 살려야 하며, 느린 곡은 풍부한 톤과 긴장을 유지하는 표현력이 요구된다.

음정의 불안정, 포지션 이동의 불확실성, 활 운용의 미숙함 등은 좋은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세심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무대를 통해 대한민국 현악기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피아노 초등부3·4학년 이성은 전남과학대 교수

음악의 본질 표현하는 연주자로 성장해 나가길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해 피아노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좋은 연주는 단순한 음을 정확히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작곡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시작된다. 알맞은 템포, 프레이징, 악상은 물론이고, 정확한 리듬과 명확한 소리, 적절한 페달 사용 등 기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음악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러한 기본기가 다소 미흡했던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 단순한 음표 연주에 머무르기보다, 음악의 흐름과 방향성을 고민하고 표현하는 자세가 앞으로의 성장에 위해 더욱 필요하겠다.

이번 경연이 참가자 모두에게 값진 배움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진정한 연주자로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한다.

국악 서담 전남도립대 교수

선곡·연주력 우수... 일부 악기 기본주법 활용 미흡

초등학생 참가자가 중심인 국악 부문은 전통곡과 창작곡을 아우른 다양한 곡목 선정이 각 악기의 특성과 표현력을 살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특히 단체경연은 음악적 호흡과 완성도에서 지도자의 역할과 역량이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구성원 간의 협력과 집중력이 인상 깊었다.



개인 부문에서는 가야금산조를 연주한 참가자가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 장래가 촉망되는 연주자로 기억되었고, 가야금병창 부문에서도 정확한 발성과 연주력을 갖춘 참가자들이 좋은 인상을 남겼다. 반면 단체 부문에서는 선곡과 악보 연주력은 우수했으나, 일부 악기에서 기본 주법의 활용이 미흡해 아쉬움으로 남았다.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국악 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 열정 가득한 무대를 보여준 모든 참가자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발레 문종숙 세한대 교수

많은 청소년들이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번 대회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색깔과 열정을 담은 무대를 선보이며, 무용을 통해 표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



특히 초등부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가 돋보였으며 창작 작품은 아이들이 발레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일부 작품에서는 제복, 음악, 의상, 동작 간의 연결성이 부족해 무대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고등부의 참여가 예년에 비해 다소 저조했던 점은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무대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

끝으로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지도자,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참가자 모두가 이번 무대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성악 고등부/초등부3·4학년 박미애 전광주대 교수

학년별 실력차 뚜렷... 깊이있는 발성 연습 필요

고등부 무대에서는 1·2학년과 3학년 사이에서 실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어려운 아리아를 안정적으로 소화한 학생이 있는 반면, 호흡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성대에 부담을 주며 노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반적으로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발성의 깊이를 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 3·4학년 경연에서는 국악풍 곡의 선곡이 두드러졌다. 예년엔 서정적인 동요와 서양식 의상 위주였던 데 비해, 올해는 한복과 부채 등 전통적 요소를 활용해 흥겨운 박자와 예술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 점이 다르게 다가왔다.

아이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며 경연장을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주었다. 앞으로도 호남예술제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피아노 중등부/초등부1·2학년 선수정 경상대 교수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자신감 키워가길

음악을 향한 순수한 즐거움과 부단한 노력이 함께 느껴졌다. 초등 저학년의 무대에서는 악기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몸으로 음악을 느끼는 즐거움이 가득했고, 중등부 무대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준비와 열정이 많았다.



다만 연주의 속도나 음량이 치우친 경향은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왔다. 음악은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크고 빠른 소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작곡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더하려는 진지한 사고와 탐구가 더해질 때 비로소 깊이 있는 음악이 탄생한다.

특히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완벽함보다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안에서 자신감을 키워가는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 예술제 참여 경험 등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면 한다.

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주/합주 김농학 목포대 명예교수

곡 해석·완성도 깊은 인상... 일부 악기 편중 경향

올해도 다양한 편성의 팀들이 참여해 열정적인 무대를 펼쳐 주었음 뿐 아니라 해마다 높아지는 참여 열기는 중주와 합주 교육의 긍정적인 확산을 보여주는 좋은 징표였다.



이번 무대는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연주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곡 해석과 높은 완성도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준 높은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전문 연주자 못지않은 집중력과 팀워크를 보여준 학생들에게서, 우리 음악교육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다만 악기 편성에 있어 일부 악기에 편중된 경향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비올라나 오보에처럼 중간 음역을 담당하는 악기의 비중이 낮아 전체 앙상블의 음향 균형이 다소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지도자들의 세심한 계획과 편성 지도로 점차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한국무용 차은희 나주대 교수

창작 자유 속에서도 '한국무용다움' 지켜져야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시립무용단 무용수로 활동하던 시절, 무대 위 춤만 봐도 '이것이 한국의 춤'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회 심사 현장에서 마주하는 무용들은 음악과 의상, 춤사위에 이르기까지 점점 한국무용의 본래 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아쉬움을 준다. 어떤 작품은 중국 고전무용과 혼동될 정도이며 어떤 경우는 현대무용과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시대의 흐름과 창작의 다양성은 물론 존중되어야 하지만, 한국무용은 단순히 하나의 장르가 아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다. 우리 춤은 국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정서를 전하는 매개가 되어야 한다. 창작의 자유 속에서도 '한국무용다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지도하는 분들만큼은 이 점을 깊이 새기고, 안무와 음악, 의상에 이르기까지 한국 춤의 정체성과 미감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미술 임남진 화가

기본기 충실한 작품 높은 평가... 주제·구성 아쉬움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부 참가자들의 표현력과 감수성, 상상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연령대에 맞는 순수한 창의력과 자신만의 시선이 담긴 작품이 높은 가치를 두었다.



중·고등부는 작품 간 편차가 비교적 컸다.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성실히 완성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주제 구성과 표현 기법의 밀도가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다만 유사한 주제와 구성이 반복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고, 심사 과정에서 난점으로 작용했다.

전년도에 비해 수목담채 분야의 출품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주제 의식과 표현력, 완성도가 높아져 긍정적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창의성을 확인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관악 주민혁 광주시향 클라리넷 수석

기술적 완성도·음악적 해석·감정 표현 인상적

참가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빛난 무대였다. 연주를 통해 각자가 긴 준비 끝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기술적인 완성도는 물론, 음악적 해석과 감정 표현에서도 인상적인 연주가 많았다. 자신만의 색을 담아내려는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다만 일부 참가자들은 음정, 리듬, 호흡, 음색의 기본적인 요소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고, 지나치게 난이도 높은 곡 선택으로 연주에 부담을 느낀 경우도 있었다.

공쿠르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 중요한 자리이다. 오늘의 무대가 앞으로의 음악 여정을 단단히 다져줄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모든 참가자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무대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열정적으로 지도 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피아노 고등부/초등부5·6학년 구재향 호신대 교수

지정곡 수준 높았음에도 막힘없는 연주 들려줘

많은 학생들이 피아노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지정곡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고등부 지정곡은 베토벤 소나타 7번, 라흐마니노프의 연습곡 등 전공을 염두에 둔 학생들이 도전할 만한 곡들이었다. 대부분 연습량이 충분해 막힘 없는 연주를 들을 수 있었지만, 각 작곡가의 스타일을 섬세하게 살려내는 데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베토벤 소나타는 빠른 템포 탓에 악상과 아티클레이션, 양손의 조화가 뚜렷하지 않았고, 라흐마니노프는 복잡한 화성과 피규레이션에 집중하다 곡의 서정성이 다소 희생된 모습도 있었다.

초등부 고학년 지정곡인 모차르트와 베토벤, 쇼팽 곡들도 각각의 난점이 분명했다. 대위법적 구조나 셋잇단음표, 옥타브 선율, 양손 리듬의 조화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성실히 준비해온 학생들과 헌신적인 지도자들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중창/합창 임선아 호신대 교수

맑고 단정한 하모니... 아이들 순수함 고스란히 전달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맑고 아름다운 것은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의 목소리이다. 중창과 합창은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마음을 모아 하나의 노래를 완성해가는 소중한 과정이며, 그 자체로 치유와 성장을 이끄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무대에 오른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곡의 난이도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 과정 속에서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즐겁게 노래했는가, 하는 점이였다. 그 마음이 모여 따뜻하고 행복한 울림으로 전해지는 순간들이 참으로 보기 좋았다.

올해 참가한 합창단의 하모니는 유난히 맑고 단정했으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무대였다. 내년에는 더욱 밝고 환한 미소와 함께 노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정성껏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현대·실용무용 임지형 조선대 명예교수

참가자 모두 탄탄한 기본기·뛰어난 표현력 보여줘

현대무용 부문은 전국 대학무용경연대회 일정과 겹쳐 다소 적은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부 참가자 모두가 탄탄한 기본기와 뛰어난 신체 표현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초등부 군무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가 돋보였고, 구성 면에서도 박진감 있는 연출이 인상 깊었다. 다만, 연령대에 걸맞은 주제 선택과 안무 구성에 있어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앞으로의 과제다.

실용무용 부문은 K-댄스의 흐름에 발맞춰 전반적인 작품의 완성도가 높았고 주제와 소재의 다양성 또한 돋보였다. 무용수 개인의 표현력과 예술적 감각이 뚜렷하게 드러난 무대들이 많아, 장르적 확장 가능성과 무용 교육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무용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과 헌신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주신 지도자, 학부모,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용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응원한다.

작문 배다인 동화작가

평범한 경험, 문학적 언어로 풀어내려는 시도 돋보여

이번 작문 부문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글 속에서 글쓰기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일상의 사소한 풍경을 놓치지 않고 자신만의 감각으로 포착해낸 글들이 인상 깊었다. 평범한 경험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문학적 언어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운문 부문에서는 감정을 비유나 상징 이미지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반가웠다. 아직은 미완성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날카로운 관찰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이 곳곳에서 빛났다. 산문 부문에서는 문학적 구조를 갖춘 글들이 등장해, 앞으로 작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다. 문장의 다듬기는 필요하지만, 진솔한 마음을 담아낸 글들이 감동을 전해 주었다. 글쓰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앞으로도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글쓰기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깊이 있게 표현해가길 바란다.